

스마트 시대 SNS 포교는 '선택' 아닌 '필수'

교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발

헤민·법륜 스님 등 대중에게 인기

오랜 옛날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암기 독송 되었다. 이후 불법은 활자화를 거쳐 근대에 들어 레코드 텔레비전 등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전법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진리는 하나지만 시대의 흐름을 타고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산중에 있는 절에서 법을 구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절이 산으로 숨어버릴수록 법의 지혜는 세상에 묻히고 대중들은 세속의 쾌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방황할지 모른다. 중생의 근기에 맞는 새로운 포교가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불교의 선사상을 통해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제품을 선보였듯이 우리는 지금 불교사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포교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SNS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제 7 미디어 스마트폰 등장

2007년 1월 애플의 CEO 스티브잡스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제품을 내놓는다. 아이맥 아이폰 등으로 혁신적 제품을 내놓았던 잡스는 혁신적 휴대전화이자 인터넷 통신기기 아이폰을 선보인 것이다. 배터리를 따로 교체하지 않는 일체형의 얇고 슬림한 이 기기는 단 세 개의 버튼만이 전부인 휴대폰으로 화면상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2007년 6월말 아이폰이 제품으로 출시되자 이 단순한 디자인의 휴대폰은 예수폰이라 불리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2010년까지 9천만대가 팔리면서 세계 휴대전화 시장 수익의 절반을 차지했다.

2012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천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의 확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급력에 날개를 달아 줬고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곳의 이야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뉴스는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트위터의 팔로우들을 통해 전세계에 퍼지는데 단 10분이 걸리지 않으며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제 대중들은 일방적 미디어가 전해주는 정보들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정보의 제공자가 되면서 1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을 통해서 정보를 확대 재생산 시켜나간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매체가 제공해주던 일방적 힘에서 벗어나 대중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 내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며 의견을 반영해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잡스와 '아이폰' 그리고 불교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아이폰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가 선수행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포틀랜드의 리드 대학교 철학과를 1학기만 다니고서 중퇴한 잡스는, 오리건 주 올인원팜이라는 사과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무렵 일본 선불교 승려인 코분치노 오토가와를 만나 선불교에 입문했고 장기간의 인도 히말라야 여행을 통해 불교를 더욱 깊게 공부했다. 잡스는 "불교를 접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잡스는 불교는 그 의가

열이 결정되는 계급제도를 부정했고 모든 출가자를 출신계급과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했다. 김 씨는 "이는 당시 고대 인도의 의식수준과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이런 사상은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계층에게 열렬히 환영 받았다.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경영 방침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애플의 철학은 불교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애플의 정신은 단순함과 직관,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독점보다는 인드라마와 같은 연기(緣起)의 그물을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륜스님의 활약도 활발하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은 현재 아이폰즈 팟캐스트 종교분야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희망편지 어플리케이션은 출시 한 달만에 가입자 수가 4만명을 넘어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토회 희망세상만들기 온라인팀장 이준길(32) 씨는 "현재 유튜브, 마이피플 채널, 아이폰즈 등을 통해 스님의 즉문즉설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스님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즉문즉설 3백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의 다운으로 이어진 거 같다. 앞으로 희망세상 만들기 300장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연애 취업 결혼 이혼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가스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법회 강연 수행 일정들을 남긴다. 이를 통해 즉석 법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SNS를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교계 SNS 포교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에서 SNS에 대한 관심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 해 조계종 포교원은 '미

불교계 SNS 포교의 허와 실

현재 불교계는 아이폰즈 팟캐스트,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의 어플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독교가 각 교회별로 목사들의 설교와 성경말씀 등을 조직적으로 올리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불교계가 사찰별로 팟캐스트에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계종 포교원은 SNS를 이용해 불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간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불자 파워블로거 발굴·지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불교트렌드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교국장 노휴스님은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SNS 기반을 개발 보급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서 포교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교계 미디어 포교의 현재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팟캐스트 종교 분야 50위 안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만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의 성경 말씀으로 채워진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페이스북 역시 헤민스님이 종교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웃 종교에 비해 좀더 다양한 사용자와 콘텐츠들이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SNS 포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중화되고 현대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확대 재생산이 SNS의 성격인 만큼 젊은층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헤민스님은 "불교에 풍부한 콘텐츠들이 많다. 하지만 너무 불교를 내세우기 보다는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시대에 맞게 개발해 대중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처 입은 대중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면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그림·강병호

기독교에 비해 콘텐츠 빈약

불교 콘텐츠 개발 시급

조계종 5개년 계획 발표

선의 근원인 붓다의 가르침은 태생부터 파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처는 당시 제도를 깨트리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파해갔고 많은 대중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애플사가 상하 관계를 깨트리고 아웃소싱 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공생의

차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게 될만큼 그는 불교적 가치를 삶속으로 끌어들이고게 된다. 애플사의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의 단순하고도 직관적 디자인의 제품들은 이런 그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아이마인드)이상 출판사를 펴낸 한국교정센터 전문 코치 김범진 씨는 스티브잡스의 성공을 선적으로 해석한다. 김씨는 "스티브잡스는 생각의 파격, 권위 권력의 파격을 통해 창조적 경영을 지향하는 애플사의 마인드를 정립하게 된다. 아이폰은 미국의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이전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의 농노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 사양이나 비용 및 기능을 통신사가 일일이 제조사를 간섭해 왔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 개발과 함께 통신사를 지정하고 통신상품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는 등 기존 업계의 관행과 불평등을 깨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카스트제도를 파괴한 부처의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1월 감사 특가 99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 중국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4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촬영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